

편치불 지방정원 조성사업 내년부터 본격 추진

최근 강원도로부터 사업비 6억 원 확보

신상훈 기자 양구

해안면에 편치불 지방정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양구군이 최근 사업비 6억 원을 강원도로부터 확보함에 따라 내년부터 편치불 지방정원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지난 10월 착수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내년애 완료되는 즉시 공사를 시작해 2022년까지 지방정원 조성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편치불 지방정원 조성사업은 평화의 화원 야생화원 습지원 미석정원 화이트가든 등의 테마정원과 방문자센터 주차장 야외무대 등의 부대시설을 비롯해 각종 체험 및 편의시설을 갖추게 된다

편치불 지방정원이 조성되면 국립 자생식물원 야생화밭 편치불둘레길 등 해안면의 기존 산림생태 관광자원과 을지전망대 제 땅굴 등의 안보관광지와 연계돼 관광객 유치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편치불 지방정원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면 정원관리에 대해 국비 지원이 가능해져 양구군은 제 호 국가정원인 순천만 국가정원과 제 호 태화강 국가정원에 이어 국가정원으로 지정받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생태산림과 허남원 녹지공원담당은 타 지역의 지방정원과 차별화된 특색 있는 정원을 조성해 관광객 유치를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고의 지방정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